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월 17일(주일) 제1083호



사진은 지난해 목회사관학교.

온누리 목회자 330명 참석 ... 마이클 프로스트 초청 2월 1일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

2016 목회사관학교가 2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포함) 330명이 참석한다. 주제는 '예수를 위한 바보들'이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 안성호 교수

(네덜란드 틴데일신학대학원),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가 강의한다. 그룹워크숍, 조별콘서트, 아웃팅(등산) 등 팀워크를 다지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월 1일에는 목회사관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가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선교적 크리스천의 5가지 습관'을 주제로 열린다. 회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의 강의를 한국교회 목회자, 교회리더십, 신학생 등과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명 선교학자다. 호주 시드니의 모얼

링(Morling) 신학대학의 부총장이자 같은 대학에 위치한 선교센터인 틴슬레이(Tinsley) 연구소 설립 원장이다. '작은 배 큰 바다'(Small boat big sea)라는 선교적 기독교 공동체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2002년), <바보예수>(2005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2009년), <위험한 교회>(2009년),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2015) 등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탈동성애자 이야기 다룬 다큐영화 시사회

1월 30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탈동성애를 주제로 만든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시사회가 열린다. 1월 30일(토)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초대한다. 자녀를 둔 성도들과 대학청년들은 꼭 봐야 할 영화다.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는 김광진 감독이 만들었다. 1년 10개월 동안 사전

조사와 탈동성애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명했다. 이번 시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교회가 사회선교적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을 품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완주하자!

1월 23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6일 남았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것을 결단하는 뜻 깊은 새벽기도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마지막 남은 한 주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늦지 않았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국내 10개 캠퍼

스, 30개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선교지에서 드리고 있다. CGNTV는 새벽기도회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산상수훈 말씀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각 캠퍼스 본당에서 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허문자 성도의 온누리교회 짝사랑

2012년 중국 길림성 산골마을에 선교사들이 CGNTV 안테나를 설치해주겠다며 찾아왔다. 마을사람 중에 허문자 성도만 신청했다. 그때부터 허문자 성도의 온누리교회 짝사랑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 온누리교회에 가보고 싶었다. 이재훈 목사도 만나보고 싶었다. 그녀의 짝사랑이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10월 허문자 성도가 한국에 온 것. 그녀는 지금 안산M센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10년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왔다. 인력시장에 가면 체구가 작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요리실력 하나는 자신 있었다. 그녀가 만드는 요리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다. 심양에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식모로 일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한 없이 친절하던 사장이 이유 없이 밥상을 얹으며 그녀를 내쫓았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그녀는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김치전도사’를 만났다. 김치전도사는 1년 동안 그녀를 전도했다. 김치전도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났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때 깨달았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밥상을 얹으셨구나.”

김치전도사의 집에 머물면서 며칠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저희 남편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남편은 30년 동안 절에 다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다. 3년 만에 어렵게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얼굴만 봐도 화가 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 한쪽에 예수님이 크게 그려진 달력이 걸려있었다. 그녀가 택배

로 보낸 달력이었는데 남편이 걸어 둔 것이다. 할렐루야! 1주일 이 지나자 남편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고 했다. 당장 심양에서 그녀에게 세례를 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사 일행이 심양에서 길림성까지 밤새 달려왔다. 극적으로 남편이 세례를 받았다. 행복에 젖은 것도 잠시, 중국 청도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폐병에 걸렸다. 온몸이 바짝 말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당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와 너희 아버지가 걷던 길은 사망의 길이다. 예수의 길을 가야 살길이 생긴다.”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주기도문을 읽어주면서 영접기도를 시켰다. 둘째 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했다. 이후 큰아들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지난해 10월 허문자 성도는 두 아들을 따라 안산에 왔다. 한국에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기 위해 두 달을 고민했다. 조카가 소개해준 안산 한중교회에 가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2월 교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런데 조카랑 왔을 때에는 금방이던 한중교회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골목을 네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해도 한중교회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안산 온누리M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노규석 목사의 설교 소리가 건물 밖으로 흘러 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배가 한창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시려고 눈을 멀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요즘 매일이 즐겁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자 빨리 예배가야지”라며 깨워 주신다. 그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자신이 변해야 가족들도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도가 열매 맺고 있다. 큰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

온누리M센터에서의 배움도 즐겁다. 그녀는 난생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이재훈 목사의 말씀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이유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 선배들을 찾아서 4



문창모 박사 흉상(위, 원주세브란스 제공)과 크리스마스 썰(아래).



문창모 박사는 190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영성학교, 오산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영성학교 재학 중에 “너는 집도 잘 살고 똑똑하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 교장선생님의 말에 기독교를 접했다. 1926년 배재학당 학생 시절 6.10만세 사건(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3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형무소에서 이질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해방 후 1948년 10월 세브란스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참 의사, 참 그리스도인 문창모 박사

야성(野聲) 문창모 박사는 크리스마스 썰을 보급해 우리나라 결핵퇴치에 앞장선 인물이다. 지난 2000년 사상 초유의 의약분업 사태 때 “환자를 떠난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일화로 유명하다. 신앙도 으뜸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서전 〈천리마 꼬리에 붙은 쇠파리〉에서 “천리마 꼬리에 꼭 붙은 쇠파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천리를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매달려 96년을 하루같이 무난하게 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6.25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치료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문창모 박사는 1932년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세운 해주 구세병원에 취직했다. 홀 선교사가 그해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했는데 문창모 박사도 그를 도와 썰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일제가 홀 선교사에게 누명을 씌워 강제추방하면서 썰 발행도 중단되었다. 1953년 문창모 박사가 대한결핵협회를 조직해 크리스마스 썰 발행을 재개했다. 일제의 방해와 전쟁 등으로 중단되었던 썰을 범국민적 모금 운동으로 자리 잡게 했다. 결핵퇴치에 큰 공헌을 했다.

문창모 박사는 미 감리교선교회와 캐나다 선교부가 40만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1959년 건립한 원주연합기독병원(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1964년 병원 근처 학성동에 ‘문이비인후과’를 열고, 2001년 은퇴할 때까지 환자 진료에 매진했다. 돈이 없는 환자가 오면 무료로 진찰해주기도 하고, 사정이 딱한 환자들에게는 여비도 보탬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농가 순회 진료도 했다. 1992년 국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을 당시에도 원주에서 새벽 진료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 의정활동을 했다. 항상 환자가 우선이었던 그는 다리와 손에 마비증세가 와서 더 이상 의료기를 쥌 수 없게 되자 2001년 은퇴했다. 이듬해 숙환으로 소천했다.

지난 4일, 문창모 박사가 근무했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다녀왔다. 그곳에 문 박사의 흉상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흉상을 볼 수 없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문창모 박사가 다녔던 원주제일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병원 정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십자가 첨탑이 보인다. 그 교회 잔디밭 한쪽에 ‘문창모 장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가 진료했다는 ‘문이비인후과’ 터도 보였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도보로 20여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다. 아쉽게도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곳에서 서서 “의사 면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른 외적인 상황들은 자신이 환자를 보는데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고 말한 문창모 박사를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ct 29 주일강단

제1083호 | 2016년 1월 17일(주일)

은누리신문 3

문서선교는

문서와 출판물 선교에 활용하는 ‘문서선교’ ...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록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파되고, 신앙 선배들 기릴 수 있어

신년기획_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교지

1. 이주민교회와 이주민선교
2. 난민사역
3. 문서선교

“인쇄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독교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이다. 문서의 위력과 중요성, 역할을 잘 웅변하는 말이다. 인쇄술과 문서선교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문서선교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이다. 인쇄술이 발달했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고, 문서선교가 있었기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문서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나라다.



로스 선교사(왼쪽)와 예수성경전서(1887)

문서사역과 문서선교

선교사 미리암 아데니(Miriam Adeney)는 문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인쇄된 문서는 보존하기 쉽고 여러 번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둘째, 읽는 사람들의 뇌리와 심중에 깊이 침투할 수 있다. 셋째, 굶주려 허기진 영혼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 넷째,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타종교와의 차이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준다. 다섯째, 잡지와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독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매스미디어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글을 실음으로써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일곱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지역, 민족에게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이렇듯 문서는 때에 맞고, 정확하고, 적절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서는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격려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게 한다. 문서를 매개체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삶

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역이 바로 문서사역이다. 이를 선교에 활용한 것이 문서선교다.

문서와 출판물 통해서 선교하는 방식을 통틀어 문서선교라고 한다. 기독교 잡지, 신문, 학술지 등의 간행물과 단행본 출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문서사역의 으뜸은 역시 성경 번역과 출판이다. 문서선교가 있었기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행 1:8)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른다.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설립자 윌리엄 캐머론 타운센트는 “가장 좋은 선교사는 원주민의 언어로 쓰인 성경이다. 성경은 선교 사들처럼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문서선교가 최적인 선교 수단인 이유다.

문서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좋고,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기독교를 전할 수 있다. 교회 안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문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크게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문서는 내용의 변질 없이 오랜시간 보존할 수 있다. 문서에 인쇄된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

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있다. 그렇기에 더 큰 위력을 지닌다. 선교의 영역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서선교는 선교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서선교의 역사와 힘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문서선교를 중요하게 여겼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어로 된 성경번역과 인쇄술 발달이 한몫했다. 이방 선교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은 문서선교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14권(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나, 바울의 문체와 서신서의 문체가 비슷하다고 하여 히브리서를 포함시키기도 함)의 서신을 썼다. 로마에 갇히기 전에 6권(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에 갇힌 뒤 4권(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순교 당하기 직전 4권(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히브리서)을 썼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분량을 바울 혼자 썼다. 바울은 설교나 전도보다 당시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쓴 서신을 통해 권고와 부탁, 복음 증거 등을 설교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도 인쇄물을 우선시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1793년 한 인쇄업자를 초청해 복인도 최초의 선교 인쇄소를 설립했다. 1820년대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중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쇄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장인 로버트 모페트도 1817년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인쇄기를 요청했다. 그는 1823년 아프리카에 최초로 인쇄기를 들여온 인물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문서선교의 역사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선교는 문서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글성경이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해 번역됐다. 189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출판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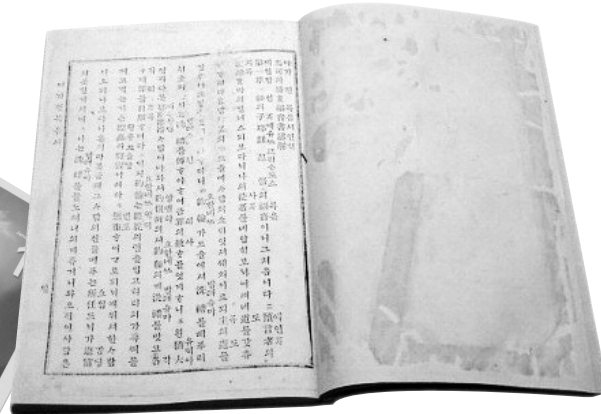
대한기독교서회를 통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이 인쇄되기 시작했다.

인쇄된 성경과 기독교적도 읽히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일. 매서인(賣書人)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했다. 그들의 일과는 오전 6시30분에 기상해 세면하고, 7시에 찬송과 기도, 성경공부를 하고, 8시에 아침식사를 마치고나면 9시부터 성경과 기독교서적을 판매했다. 오후 1시에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성경과 기독교서적 판매를 시작해 오후 6시에 기착지에 도착해야 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150권씩 기독교서적을 가지고 다녔다. 그들의 헌신으로 교도소와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과 도박판, 아편소굴, 궁궐과 가게 등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기도, 길거리에서 팔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서당, 잔치집, 장터에서도 팔고, 전도했다. 매서인들이 방문한 곳마다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초기 한국교회 개척 최전방에 서 있던 매서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다.

부해리(Henry Munro Bruen) 선교사는 높은 산길을 지나지 않으면 나을 길이 전혀 없는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모두 매서인들의 헌신적인 사역 덕분이다. 한국 기독교 부흥에 문서선교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문서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만주에서 사역하던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그들은 의주 출신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 서상륜 등과 함께 1882년 최초의 조선어 성경(예수성경 누가복음전서)를 번역·출판했다. 1887년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완역 신약성경(예수성경전서)가 번역·출판됐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1883년(현토한 신약성서)과 1885년 <신약마가복음서언해>를 출판했는데,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내한하면서 그 성경을 들고 입국했다.

최적의 선교 수단



▲마가복음 전서(1885, 이수정 역)
 ▲두란노 출판물

현재 한국에는 약 200여개의 기독교 출판사가 있다. 연간 1,600여 종의 신앙 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는 문서선교가 있다.

이단·사이비의 문서, 각별히 주의해야

문서선교의 위력을 이단·사이비 단체들도 잘 알고 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도 문서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단의 문서사역이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하고 있는 전도지 <파수대>다. <파수대>는 여호와의 증인이 매월 2회 발행하는 잡지다. 무려 1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40개 언어로 전 세계에서 약 6천만 부나 인쇄되고, 배부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식교의 재림신문사, 월간지<시조>와 <가족과 건강>, 물몬교의 월간지<리아호나>와 <성도의 빛>, 구원파의 월간지<기쁜소식>과 도서출판 영생의 말씀사, 영생교의 승리신문, 말씀보존학회의 월간지<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락교회의 주일신문과 월간지<베뢰아사람>, 다락방의 만민TV, 민족복음화신문, 만민중앙소식지, 증산도의 월간지<개벽>, 신천지의 올댓뉴스 신문, 남묘호렌케교의 경복매일신문과 화광신문 등이 있다. 통일교는 세계일보(일간지)를 비롯해 위싱턴타임스, UPI통신, 종교신문사(종교신문발행), 성화출판사, 통일세계(출판), 신명출판사, 월간광장, 월간초교과, 세계언론인연합 등 일간지와 월간지를 출판 및 인쇄, 판매하고 있다.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이 발행하는 문서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서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야 한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문서선교의 역할이다.

온누리교회와 문서사역

온누리교회의 대표적 문서사역 기관은 두란노서원이다. 하용조 목사가 1980년 연예인교회를 사임하고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청년 드라마

‘스.드.메(Special Dream Mate)’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진솔한 이야기

_ 여호수아공동체

‘스드메’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다. 여호수아공동체 소속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웹드라마 ‘스드메(Special Dream Mate)’를 만들었다.

웹드라마 스드메는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 겪었을 갈등을 그렸다.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는 차가운 현실도 잘 반영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경상북도 포항 출신 가난한 남자 민찬은 영상감독을 꿈꾸며 상경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현실에 부딪혔다. 부모 없고, 돈 없는 남자가 서울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녹록치 않았다. 여자친구 소리는 그를 존중해줬다. 하지만 민찬은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져있다. 그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만나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과 세상에 을(乙)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사실 결혼이야기보다 현실을 뛰어 넘는 기적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말 열심히 살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방영된 웹드라마 ‘스드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편집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에피소드1. 결혼이라는 기적, 믿으십니까?

“결혼, 왜 이리 어렵니?” 요약하자면 이렇다. 주인공 백민찬은 영상감독이다. 백민찬은 카메라를 앞에 두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인터뷰했다. 오디션을 보러 온 많은 배우들에게 결혼관을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 당연히 해야죠. 여자 인생이 달라지는데, 결혼은 예식장과 부케에 따라 결정되죠!”

수많은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결혼관을 이야기했다. 백민찬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의 속마음은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민찬은 로맨티스트다. 자상한 성격, 외모,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의 여자친구 소리는 바쁜 그를 늘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여성이다. 여자친구 소리를 위해 민찬은 친구들을 동원해 근사한 프러포즈를 준비했다.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프러포즈는 결혼 입문 전 첫 단계다. 여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다.

민찬은 친구들을 동원해 좋은 레스토랑을 빌리고, 소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에피소드2. 나랑 결혼해줄래?

여자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판타지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사랑이라는 끈이 실낱같아 보일 때가 있다. 에피소드 2편, ‘나랑 결혼해줄래?’는 로맨티스트 민찬의 프러포즈 이벤트를 소재로 극을 이끌어간다.

민찬은 소리와 보낸 시간을 되새기는 영상편지로 마음을 고백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떨어뜨린 사과와 고백 할 때 줬던 안개꽃, 소리가 민찬에게 건네준 아메리카노는 그들의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민찬은 소리와 함께 보낸 사소한 추억까지 기억하는 자상한 남자다.

그런데 프러포즈를 하는 도중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다. 프러포즈하는 순간에도 회사에 가는 민찬의 행동이 소리는 섭섭하기만 한데...

에피소드3. 청첩장

열어진 사업. 민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는 현실이었다. “남자에게 돈이 없다면, 여자는 과연 결혼을 할까?” 바로 이것이 에피소드3의 주제다. 소리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며 결혼한다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좋은 예식장에서 비싼 결혼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그저 부럽기만 하다. 그런데 민찬이 소리의 친구들에게 밥을 사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일까. 민찬은 갑(甲)회사로부터 이번 계약을 파기하지는 연락을 받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에게 결혼이

한 것도 이야기 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의 갈등은 남자만의 문제도,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오빠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 줄 알아?”

“아니, 모르겠어. 네가 원하는 게 뭘지 몰라서 가장 힘들어!”

소리와 민찬의 대화는 불협화음을 의미했다. 커플이라면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다. 다행히 헤어 나갈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 “힘들었겠구나, 미처 몰랐어”라며 수긍하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이 태도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결혼은 바로 그런 기적을 필요로 했다.

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결혼을 3주 앞둔 여자가 꿈꿔 온 결혼식이란 무엇일까. 예쁜 드레스에 좋은 예식장, 하객의 축하. 그 누구도 신부 입장을 막아설 사람은 없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부모의 반대를 의미했다.

에피소드6. 기적은 항상...

“결혼, 왜 이리 어렵니?”

“너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사랑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님 그냥 사는 거야?”

티격태격 싸우고 나니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 민찬과 소리의 서먹함만 남았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공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민찬과 이 남자를 믿고 평생을 가야하는지 의심하는 소리의 마음만 남았다. 결혼식장으로 가던 차가 기름이 떨어져 결국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 결혼식 반지를 떨어트리는 민찬에게 운전기사가 반지를 주워준다. 그런데 운전기사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가 바로 사과를 떨어트렸던 주인공이다. 안개꽃을 권하던 주인공이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운전기사는 기적을 의미했다. 그 운전기사는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였다.

“기적을 꿈꾸시나요. 기적은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에피소드6에서 민찬과 소리가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의 장면.

란 과연 사치일까.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만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는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에피소드4. 기적이 필요해

3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그들이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상황은 이미 열어졌고, 갈등이 쌓여 폭발했다. 결혼하기 전 그들 앞에 닥친 위기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남자, 상황을 설명해 주기 원하는 여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 이야기를 한다. 반면 여자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함께 고민하고, 소소

에피소드5. 내가 꿈꿔 온 결혼식

민찬은 지난 추억 상자를 열어본다. 민찬이 써놓은 일기에는 상경을 하고, 소리를 만난 과정, 그의 포부와 꿈이 적혀 있었다.

“멋진 감독이 되고 싶다. 도전과 감동을 주는 영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민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 알바와 잦은 막노동물 하면서 영상감독의 꿈을 꾸고 있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기적이 필요해요.”

반면, 소리는 민찬을 선택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소리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다.

“혹시 너라면 결혼하려는 사람이 다 좋은

감독의 변

“웹드라마 스드메는 여호수아공동체 프리즘그룹 문화사역팀이 제작했다. 이 드라마는 50명의 스태프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비크리스천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제작했다. 1~2달은 시나리오를 의논했고, 촬영과 편집을 해서 6부작으로 만들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다 보니 가장 관심이 많은 결혼을 주제로 기획하게 됐다. 가난한 혼인잔치를 묵상하면서 만든 영상이다.”

* ‘스드메’는 SNS(페이스북, 갯피플 소셜채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p7i7SbDPg>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10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마틴 루터의 흔적을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루터의 흔적을 시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공간적으로 따라가 보았다. 시간적으로 따라갔다면 아이스레벤에서 시작해 아이스레벤에서 끝나야 한다. 그곳이 루터의 출생지인 동시에 숨을 거둔 곳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다. 광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당시 관습대로 루터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가서 하나 남게 보였다고 한다. 그레아만 온갖 질병(특히 돌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 생활을 하다 철광석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고생해 본적은 없었다. 그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광부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사제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과부가 된 광부의 아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남편을 위한 면죄부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루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면죄부 값을 돌려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사역을 위해 아이스레벤을 방문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루터의 출생지와 사망지는 박물관으로 꾸

며져 있다. 성안나교회는 만스펠트 지방에서 루터의 개혁신앙을 지지한 첫 번째 개신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 안에는 성경책 석조상과 29개의 부조판이 있다. 네 명의 복음서 저자와 구약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조각되어 있다. 루터의 생가 바로 근처에는 성베드로바울교회가 있다. 이곳이 루터가 태어나자마자 하나 남게 보여드린 곳이다. 그가 세례를 받은 교회다. 성안드레아스교회는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곳이다. 루터의 시신이 비텐베르크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치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에르프르트(Erfurt)이다. 루터는 에르프르트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공부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인문학을 공부하다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였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루터는 어거스틴(Augustine)수도원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했다. 수도사로서 서품도 받았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원장이 루터에게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하였고,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됐다. 루터는 처음에는 수도사(Monk)로 시작해 다음에는 설교자(Preacher), 나중에는 개혁자(Reformer)가 되었다. 그는 사제가 되었어도 죄와 구원의 문제, 행위와 은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루터에게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결국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새로운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였다.

에르프르트에서는 에르프르트대학과 어거스틴 수도원,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은 세인트메리교회, 친구가 벼락에 맞았던 자리 루터

루터의 흔적 찾는 마지막 여정 ‘아이스레벤’



루터가 사제로 서품받은 교회.

스톤, 그가 설교했던 이벤젤리교회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어거스틴 수도원은 꼭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미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 더 들고 싶다. 먼저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당시 사회구조는 15%의 귀족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농민들이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던 차에 루터의 등장은 메시아의 출현과 같았다. 농민들은 그런 의미로 루터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였다. 두 번째는 가톨릭교회의 타락이다. 당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권력 집단으로 전락했다. 권력 이면에 생기는 많은 부작용의 결말은 타락이었다. 면죄부 판매가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에 대한 반발은 견제를 수 없이 심해졌고, 영적 쇄신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다. 95개 조항 반박문과 독일어 성경은 인쇄술 덕

분에 신속하게 독일 전역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그의 방대한 분량의 저서들도 쉽게 출판 보급될 수 있었다.

우리의 신앙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세교회의 증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교회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질을 잃고, 타락할 수 있다는 개혁신앙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박승훈 전도사(남양주 차세대)



영화 ‘히말라야’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이 영화보다 먼저 개봉한 영화 ‘에베레스트’가 산에 오르는 험거운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면, ‘히말라야’는 원정대의 의미와 고충을 잘 드러냈다. 2004년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후배 동료 박무택(정우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휴먼원정대의 가슴시린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가 다소 갈렸다. 실화의 감동을 잘 그려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의도적 감성 호소에 실망한 관객도 있었다. 필자는 자녀와 함께 한번 더 이 영화를 볼 것이다.

이 영화는 도전, 체력, 팀워크(teamwork), 희생 순으로 이야기를 그려 나간다. 엄홍길 대장의 몸 상태 악화와 굶은 날씨, 고산병, 생사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나누는 대원들의 말이 참으로 소박하다. 무엇보다 동고동락하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들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서는 감히 산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굶어치는 인생살이 속에 안전한 삶을 누리기보다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도 느꼈다.

극중에서 “산을 정복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박무택 대원에게 엄홍길 대장이 “우리 산쟁이는 정복이란 말 안 씁니다. 운 좋게 산이 허

그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과 같다

락해서 잠시 머무는 거죠”라고 말한다. 그렇다.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르려는 의지는 정복이라는 단어보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정복이 주는 희열보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 대면하려는 의지가 더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엄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박하게 말한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필자에게는 이 말이 “우리팀이 불확실한 두려움을 이겼다”는 말로 들렸다.

정상에서 내려오던 도중 해발 8750m에 에베레스트 테스존에 잠들고 있는 박무택, 박정복, 정재현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례 없는 원정을 준비한다. 그렇게 대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 ‘아이스 폴’을 지나 방하의 갈라진 틈 ‘크레바스’를 넘나드는 장면이 묘사된다. 팀원들은 서로의 몸에 로프를 연결하고 조심스럽게 발

걸음을 내딛는다.

필자의 마음에 ‘공격’이라는 말이 남았다. 실패 후에 다시 공격하리라는 말은 본질적인 두려움을 품고 있는 인간의 삶이 끝이 아님을 예고한다. 실종된 박무택 대원을 찾아 어떠한 보상도 없이 떠난 원정대의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장 선명하게 남은 장면이 고산 등반을 위해 체력, 테크닉, 전략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었다. 코막히게 그렸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장시간 걸어야 하는 ‘도보행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추위’,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가 팀원들을 연합시켰다. 두려움 앞에 몸부림치며 등반하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이 마치 차세대의 훈련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자녀들과 함께 영화 ‘히말라야’를 다시 한번 보며 차세대가 앞으로 신앙의 모험가가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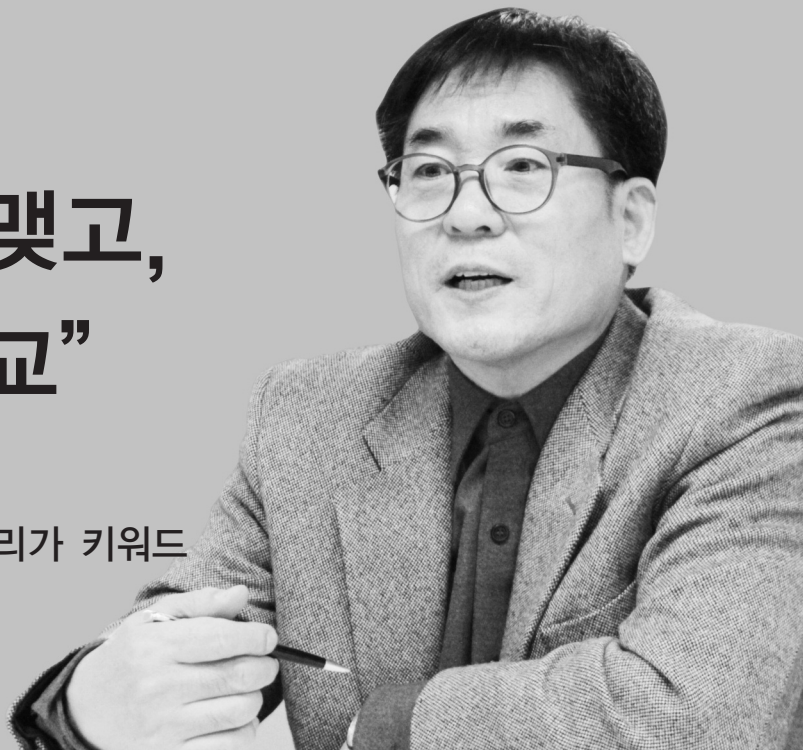


본지에서는 새해를 맞아 12개 사역본부장에게 올해 사역계획과 방향, 포부를 듣고 있다. 이번 주에는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여성민 목사,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를 만났다.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

“이웃들 찾아가 관계 맺고, 섬기는 것이 사회선교”

모두 함께, 봉사영역 개발 및 실행, 교회와 사회 연결고리가 키워드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 뿐만 아니라 사회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비전을 따라 시간, 재능, 물질, 은사들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선교본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선교는 어떤 교회건 목회자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게 된 것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2014년 출범했습니다. 기존 구제봉사와 긍휼사역 등을 사회선교라는 이름으로 묶고, 지경을 넓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사회선교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선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선교는 해외 선교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선교는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기도하고, 물질 후원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섬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운 노인들, 홀로 된 아이들의 문제는 배가 고파서 생긴 것보다 관계가 없어서 생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의 비전이자 포부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

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교회가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 교회들은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그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선, 지속성 있는 사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사회선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사회선교부의 구체적인 사역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사회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사회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회선교를 오해하는 성도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회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사회선교가 무엇인지 신학적,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2015년 12월 12일자)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사회선교의 방향을 제시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태어난 교회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땅 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도 선교 현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고통 받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 참여는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과 청년, 장년층,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

의 교회는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봉사봉사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봉사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 생명과 환경, 청지기 사역에 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구제봉사와 긍휼 대상을 찾아가 돕는 기존의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봉사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러빙유 청년 벤처대회, 러빙유 청년부채해결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사랑채버와 온사랑합창단 운영, 독거노인, 탈북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회 외부의 사회봉사 시설, 단체와 연계 및 신설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내용이 올해 사회선교부의 사역 방향 및 사역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기존의 봉사를 지속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외부 단체와 협력하고, 뒤에서 후원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봉사영역 개발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평소에 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한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것을 기획했는데 호응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3포(연애, 결혼, 출산), 5포(3포에 취업, 주택구입), 7포(5포에 인간관계, 희망)세대라고 할 만큼 청년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면 통일이 되도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해야 합니다. 목회자부터 탈북사역에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탈북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목회자를 세워 통일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다는 말은 곧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회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몸, 시간, 물질로 보여줘야 합니다. 올해 ‘1다락방 1사역지’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추천을 받은 가족과 결연해 교제도 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는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중심의 선교가 더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고, 하나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고, 공동체와 동지 의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선교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선교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거처 없이 가난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회선교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쁨으로 사회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도사역본부장 여성민 목사

“전도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맞춤전도집회, 군 선교, 병원선교, 열린 예배 집중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전도는 삶의 목적이자,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행사나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말보다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전도사역본부장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전도사역본부장은 크게 4가지 분야의 전도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맞춤전도집회, 군 선교, 병원선교, 열린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도콜센터 사역 안에 전도폭발훈련과 전도학교가 있었지만,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전도폭발훈련과 전도학교(전도콜센터)가 운영됩니다.

맞춤전도집회는 연령이나 직업 등으로 전도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집회를 말합니다. 부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전도집회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군 선교는 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7회 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5월 연무대군인교회에서는 훈련병 2,6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원전도는 세 가지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김경숙 목사가 내주하면서 생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팀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전도팀은 온누리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성도의 친구, 친척들을 위해서 기

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병원전도팀이 언제든지 달려 갑니다.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학교, 전도폭발훈련, 전도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콜센터는 매주일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도와 관련된 요청이 있으면 전도학교 훈련생들이 찾아갑니다. 전도폭발훈련은 주중에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전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고, 깨어지고, 소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비로소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대상자와 함께 교제하고, 화합할 때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전달됩니다. 특히 전도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전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

게 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의 표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주변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까?

“올해 전도사역본부장은 개인, 순, 공동체 별로 체계적인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인 맞춤전도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은 방송인, 법조인, 의료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40~50대 남편들을 위한 전도집회 비긴어게인 후속프로그램이 1월 23일에 실시됩니다. 올해 장애인들의 부모님과 가족 맞춤전도집회와 5월은 모든 공동체 ‘순 맞춤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사역팀과 연합하는 전도집회도 필요합니다. 여성사역, 수요예배, 열린 예배, 차세대, 대학청년부와 끊임없이 이 비전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훈련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

“마리아행전이 여성사역의 비전입니다”

묵상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돕는 여성사역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사역본부장은 온누리교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여성은 한 가정의 믿음의 여인을 뜻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딸이기도 한 여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위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성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대표적으로 예배와 기도, 양육, 전도, 성경공부, 문화, 교회봉사, 사회선교, 해외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은 전 캠퍼스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이 가장 잘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매달 전 캠퍼스 여성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함께 사역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됩니다.

매년 6월, 마리아행전이 진행됩니다. 마리아행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부흥기도운동입니다.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2일~24일에 마리아행전을 합니다. 마리아행전을 위해 매주, 매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 진행되는 ‘여성맞춤전도’는 결신율이 높습니다. 새신자 양육과 교회 등록, 세례까지 이어져 은혜가 넘칩니다. 또한 ‘성경일독학교’가 각 캠퍼스마다 진행됩니다. 이것은 여성사역의 대표적인 성경공부입니다. 여성사역의 ‘큐티나눔방’도 빼놓을 수 없습

니다. 큐티 베이직 과정은 4주를 진행하지만 여성사역의 큐티베이직은 보통 7주 필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4주 큐티베이직 이후, 3주의 그룹별 큐티 나눔과정을 통해 큐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릎기도학교’는 10년 간 진행된 사역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입니다. 오전에는 선교사 사역보고 및 기도를 하며 오후에는 나라별 기도를 합니다. 무릎선교사들의 대부분들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중보합니다. ‘좋은어머니스쿨’은 어머니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비크리스천 여성 30%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 외에도 서빙고 여성사역은 작년부터 ‘모세기도방’을 운영합니다.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제목, 교역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성사역 사회선교 좋은이웃모빌팀은 각 캠퍼스별로 운영됩니다.”

올해 여성사역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작년 맞춤전도를 통해 수십 명이 결신하고 세례를 받고, 양육받았습니다. 마리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각 캠퍼스별 양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웃리치를 통한 프로그램과 직장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큐티나눔방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2016년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기도훈련을 할 것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사회로 들어가 섬기는 여성이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역을 개발하고, 가정예배를 통해 집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청년들이 되라!”

2016년 청년부 리더십컨퍼런스 ‘더원(The One)’

지난 8일, 청년 리더십컨퍼런스 ‘더원(The One)’이 막 올랐다. 더원 집회는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됐다.

8일에는 박종길 목사가 ‘거룩한 리더가 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목사는 청년들에게 “결단하고, 미루지 말고, 인생의 지도를 그리라”고 제안했다. 9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예수를 위해 살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목사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외에도 김하중 장로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김건희 대표(극단 배우는사람들)가 ‘섬김의 리더가 되라’, 김승수 목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여호수아공동체 정다는 대표MC는 “청년부 리더십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W공동체 박성실 대표MC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봉사와 헌신, 섬김을 되새기



더원 집회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

게 되었다”고 말했다. MU공동체 이상훈 대표MC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매년 열리는 청년 리더십 컨퍼런스

는 순장, 부순장, 사역팀장을 포함한 대학청년부 리더십들이 참석한다. 한편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고(Go)’는 오늘까지 진행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장학위원회 파란단추, 장학생 모집

한동대 재학 중인 학생이나 자녀 둔 성도 대상

장학위원회 파란단추에서 1월 31일까지 한동대학교가 기탁한 ‘온누리교회 기탁 장학금’을 받을 장학생 5명을 모집한다.

한동대학교가 기탁한 장학금은 총 2천 5백만 원이다. 한 명당 5백 만 원씩 전달된다. 대상은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도나,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성도다. 공동체나 사역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한동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장학금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다.

장학위원회 파란단추는 장학금지급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멘토를 연결해주는 사역도 하고 있다.

문의: 김경렬 간사 02-3215-32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가능

온누리장로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디션은 2월 13일(토)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층 성가대실에서 할 예정이다. 오디션 참가곡은 자유곡이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2013년 결성됐다. 평균 연령 66세다. 단일 교회 장로들이 모인 국내 유일의 합창단이다.

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러브소나타 집회에도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교회를 찾아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강남구청 초청으로 강남역에서 캐럴도 부르는 등 몸소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문의: 하성기 총무 010-5305-279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프랑스어예배 1주년 감사예배

프랑스어예배 창립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0일 양재 온누리교회 햇빛트리 나티 강의동 304호에서 프랑스어예배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는 “프랑스어예배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설교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마르탱 바보카 목사가 했다. ‘평화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설교한 마르탱 바보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010-3912-9393

CGNTV 제4기 시청자 모니터단 모집

2월 19일까지

CGNTV가 2월 19일까지 제4기 시청자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방송선교에 관심이 있는 CGNTV 모든 시청자가 대상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시청자 모니터단으로 선발되면 CGN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모니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주 1회). 격월로 진행되는 정기모임에서는 모니터

단 토론, 제작진과의 만남, 촬영현장 견학, 이전기수 모니터단과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원방법은 CGNTV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제4기 시청자 모니터단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cgntvma@cgmilnet

문의: 02-3275-9518

13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13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38기 아버지학교는 1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화비는 12만원이다.

참가신청은 전화(02-2182-9100)나

홈페이지(www.father.or.kr)에서 하면 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의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바른 아버지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문의: 김재덕(010-9789-7316)



용산복지관과 용산건설현장팀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난방용품 전달했다.

용산복지관, 현대건설 현장팀 독거노인 방문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용산복지관)과 현대건설 용산건설현장팀(이하 현대건설 현장팀)이 용산구 지역 독거노인들을 방문했다. 이날 용산복지관 직원들과 현대건설 현장팀은 50여 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보온텐트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용산복지관측은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현대건설 현장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독거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조직도 수정

서빙고 캠퍼스_공동체									
구분	공동체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총무(팀장)	실행위원		
	A 권역	이수	운영위원회	최성석	최성완	최인기	정윤채 우상근 이동희 안동혁 김효구 이상을 양 웅 김복균 나화성 김성규 최정주 김재덕 이승배 위성규 정기삼 이규화		
			양육운영팀			안동혁	김성규 나화성 김미영 최인기 이승배		
	사역팀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장례사역		손신국	이상도	이문형		김경하 김경화 김명철 김영민 나성자 박순향 박종현 송옥희 신순철 양제분 오수재 원현숙 유연순 이문영 이상문 주덕규 최기순 최성자 황석순 황재숙		
서빙고 캠퍼스_예배									
구분	통합사역팀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 사역 본부	예배 안내		주일예배	6부 이수	예배담당 PD	최성완	김복균	최인기	안동혁 김효구 이상을 허 백 김성준 이기원 박명호 김항임 예상욱 김성규 문용준 양 웅 정기삼 김기산 김형숙 김병찬 남춘희 이상준 이상준 박상근 이승택 이명원 김재덕 최인기 손은종 이정석 김명정 나화성 장용환 이승배

Act 29 칼럼

12 은누리신문

2016년 1월 17일(주일) | 제1083호

